

2022 프로야구 우승 단장 이어 감독과도 결별

SSG, 'SK 색깔 지우기' 본격?

SK 출신 코치진도 물갈이
차기 사령탑 관련 "아직
후보군 추리지 못해"

창단 첫 우승에 앞장선 단장에 이어 감독과도 결별하면서 SSG 랜더스의 SK 와이번스 색깔 지우기가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SG는 지난달 31일 김원형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11월 SK 지휘봉을 잡은 김 전 감독은 2022년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끈 뒤 3년, 총액 22억원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SSG는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은 김 전 감독을 전격 결별했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달성한 SSG는 올 시즌 초반 LG 트윈스와 2강 구도를 형성하며 디펜딩 챔피언의 자리를 과시했다. 그러나 후반이 들어 투타 모두 극심한 부진에 빠졌고 한때 6위까지 추락했다.

시즌 막판 뒷심을 발휘해 정규시즌 3위를 차지하고 준플레이오프(준PO·5전3선승제)에 직행했으나 NC 다이노스에 무기력하게 3연패를 당하며 가을 야구 무대에서 조기 퇴장했다.

SSG 구단은 김 전 감독과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성적 때문이 아니라 김 전을 그었다. 김성용 SSG 단장은 전날

"세대교체와 변화, 혁신을 이룰 리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세대교체"를 명분을 내세웠지만 SSG가 SK 색깔을 본격적으로 지워나가는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신세계그룹 이마트는 2021년 1월 SK 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던 야구단을 1352억8000만원에 인수했다.

그해 정규시즌 개막을 약 2개월 앞두고 인수 작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신세계그룹은 선수단 프랜티를 100% 고용 승계했다. 창단 이후 2년 동안 SK 야구단을 구성했던 이들에게 구단 운영을 그대로 맡겼다.

하지만 변화가 감지됐다. 이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SSG의 창단 첫 통합 우승에 크게 기여한 류 전 단장의 자진 사퇴였다.

류 전 단장은 SK 야구단 프랜티의 핵심이었다. SK가 창단한 다음 해인 2001년 SK로 이직한 뒤 20년 넘게 한 팀에만 몸담았다. 마케티팅 기획파트장, 홍보 팀장, 육성 팀장, 전략기획팀장, 데이터분석 그룹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친 뒤 프랜티 수장 자리까지 올랐다.

지난해 통합 우승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류 전 단장의 사퇴는 이례적이었다.

시즌 중 야구단 운영과 관련이 없는 구단주의 최측근이 구단의 의사 결정

과 인선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류 전 단장이 구단 내부 문제로 강제 퇴임하게 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선이었다.

여기에 SK 왕조 시절의 주축 투수로 활약하고 사령탑에 올랐던 김 전 감독이 경질되면서 SK의 색깔은 더 얼어졌다.

공교롭게도 최근 SK 출신 코치들도 대거 팀을 떠났다.

SK 왕조 시절을 이끌었던 채병용 코치가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이진영 코치도 팀을 떠나게 된 상황이다. 정경배, 김민재 코치는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로, 조웅천 코치와 정상호 코치는 두산 베어스와 롯데로 각각 이적했다.

'칼바람' 수준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SSG가 무리하게 SK 색깔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감독의 경질이 파격에 가까웠기에 SSG가 새롭게 선임할 사령탑에도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메이저리거 박찬호, 추신수가 물망에 올랐다는 등 소문만 무성하다.

차기 사령탑에 대해 김 단장은 "아직 후보군도 추리지 못한 상황"이라며 "차기 감독은 구단의 방향성을 잘 이해하고, 한층 적극적인 세대교체를 이뤄줄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핸드볼 리그' 11월 개막... 연맹, 미디어데이 진행
한국핸드볼연맹은 1일 서울 송파구의 롯데호텔 월드에서 14개 구단 감독 및 선수가 참석한 미디어데이를 진행했다. 기존 'SK코리아리그'를 대체하는 핸드볼 통합 리그인 H리그의 이번 시즌 대회 공식 명칭은 '신한 SCL 리그 2023~2024 H리그'다. (사진=한국핸드볼연맹 제공)

이근우, 항저우 장애인AG서 맹활약

탁구 女단식 은메달 · 女단식 동메달

2022 항저우장애인아시아인게임 탁구 종목에 출전한 장수군 장애인체육회 소속 이근우 선수가 여자단식에서 맹활약을 보였다.

장수군 최초로 장애인 아시아인게임에 출전한 이근우 선수는 4회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인게임 탁구 종목 TT6 등급 여자단식, 여자복식 부문에 출전했다.

이근우 선수는 여자 개인전에서 홍콩을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결승전에서 이라크에 3-0으로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27일 진행된 여자복식에서는 중국에 이쉽게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백영복 선수는 단식과 복식에서 8강에 진출했으나 태국에 패배했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단은 지난 22일부터 개최된 제4회 항저우 아시아인 게임에서 탁구 종목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의 종합 4위 달성에 힘을 보탰다.

항저우에서 7일간의 일정을 마친 선수들은 오는 3일부터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 전북도와 장수군을 빛내기 위한 여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희식 장수군장애인체육회장은 "두 선수의 도전과 열정으로 전북도민과 장수군민이 큰 힘을 얻었다"며 "부상 없이 무사히 경기 마치고 돌아오기 기쁘고, 모든 기량을 아낌없이 쏟아내 경기를 펼친 선수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세상 멋진 운동 태권도' TV 광고로 만나다

태권도진흥재단, 도장 활성화 지원 위해 제작... 전국 1만여 도장에도 영상 제공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광고 영상을 제작, TV와 SNS를 통해 11월 한 달간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태권도'라는 주제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운동이자 취미인 태권도'를 도장에서 만나보자는 등 생활 스포츠로 태권도를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광고는 1일부터 KBS, SBS, tvN 등 TV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한 달간 선보인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KBS는 '1박 2일'과 주말 드라마 '효신애 각자도생', SBS 8시 뉴스와 '골 때리는 그녀들', tvN 어저대 사장 3와 '장사천재 백사장 2' 등 방송사 별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에 광고를 편성하



는 등 더 많은 국민들에게 노출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15초와 20초, 30초, 60초 등 4편의 영상물과 3종의 포스터를 제작해 광고에 활용하는 동시에 영상물과 포스터를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

도협회를 비롯한 전국 1만여 도장에도 제공해 태권도 및 도장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TV 광고를 제작·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라며 "태권도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도장이 남녀노소 수련생들의 합성으로 더욱 북적일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2021년부터 TV 광고를 통해 코로나9로부터 안전한 태권도장을 주제로 한 태권도가 필요해, 2022년에는 성인 태권도 활성화와 태권도는 일상이다 광고를 제작해 TV로 송출하는 등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우디, 2034년 월드컵 유치 '유력'

FIFA 회장도 언급... 30일 개최 의향서 마감 내달 초 발표 예정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지로 유력해졌다.

지난 인판티노 FIFA 회장은 1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시아에서 2034년에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뜻한다.

2034년 월드컵 유치 후보로 나섰던 호주, 인도네시아가 물러나면서 사우디가 단독 후보로 남았기 때문이다.

호주와 공동 개최 의사를 밝혔던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사우디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호주도 유치가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26년 월드컵은 북중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2030년 대회는 아프리카와 남미, 유럽(모로코-

스페인-포르투갈 공동개최)에서 열린다.

인판티노 회장은 "3개 대회에 걸쳐 5개 대륙, 10개 국가가 월드컵에 참여함으로써 축구는 진정한 글로벌 스포츠가 될 것"이라며 "축구는 다른 어떤 종목보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스포츠"라고 말했다.

FIFA가 제시한 2034년 월드컵 개최 의향서 제출 마감은 이달 30일이다. 하지만 사우디가 단독 유치가 나서면서 사실상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FIFA는 12월 초 2034년 월드컵 개최국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무더운 날씨로 11~12월에 개최됐는데, 2034년 대회도 겨울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

KBO,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 내년 도입

KBO(총재 허규연)는 2024시즌부터 외국인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이탈 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KBO 이사회는 외국인선수가 장기 부상을 입어 전력에서 이탈할 경우 즉각적인 선수 수급의 어려움과 기간 전력 불균형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소속 외국인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할 경우, 기존과 같이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외국인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또는 부상 선수를 재활 선수명단에 등재하고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교체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해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다나온 KFS **축! 전주매일 창간**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농어촌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입니다.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꾸는 우리 농어촌.
어제의 농어촌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었듯이
오늘의 농어촌이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듭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생산지원 정비사업** **농어촌농수 및 유통관리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지체 및 해외사업** **KFS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